

'자연이 베풀어 주는 끝없는 선물'

김정옥 금속공예 초대개인전
14일부터 문화공간기린미술관서

문화공간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속공예 작품 50여점을 선보이는 김정옥 초대개인전 '자연이 베풀어 주는 선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0월 중순 서울 인사아트센터 JMA 스페이스에서 있었던 동명 타이틀의 개인전에 연계되어 진행된다.

작가가 지닌 금속공예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은 사유와 미감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인간 존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자연'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대중과 친숙한 매체와 조형미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구성되어 보는 이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깊은 공감의 울림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자연'이다. 작가는 유기적이고 생물학적인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자연물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 지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는 치열한 사유와 탐색을 통해 작가만의 독특한 표상을 세상에 선보인다. 금속장신구 공예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이번 전시는, 금속장신구 중 브로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자연이 베풀어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50여점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가 사용한 주재료는 은과 금, 그리고 천연석이다. 금속장신구공예에 사용된 금속은(Silver)은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자연이



주는 선물로서의 그 온화함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기법인 금부기법을 사용했으며, 상아, 였스, 옥, 마노, 라피드라줄리, 산호, 수정 등 천연석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색상과 다양한 의미를 금속과 함께 연출하여 보석 상호간의 조화를 돋보이게 작업했다.

이번 작업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끝없는 선물인 금속재료와 아름다운 색상의 준보석(천연석)을 사용하여, 자연을 주제로 하고, 다양한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했다. 크기는 작지만 독특한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품격 있고 이야기가 있는 장신구를 완성하여, 기존의 액세서리 개념의 장신구와는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또한 대중들의 금속장신구 문화의 이해와 향상에 기여하며, 작가의 창작



역량을 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번 전시가 예술적 미감의 교류와 소통의 시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옥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금속공예전공) 및 동대학원 산업공예과(귀금속공예전공)와 귀금속보석공예과(귀금속디자인전공) 보석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이번 초대전은 작가의 8회 개인전이며, 다수의 기획초대전 및 아트페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귀금속디자인과,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원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출강,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귀금속공예과 강의전담 교수를 역임했다.

/김재훈 기자

전통과 현대의 리듬을 아우르다

14일 부안예술회관서 타악퍼포먼스 '청명' 자체 기획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타악퍼포먼스 '청명'을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극단 청명(대표 김민석)은 난타 퍼포먼스 공연의 선두 주자로 난타 공연 섭외 1순 위이며 극단 리더 정관모씨는 부안이 고향이다.

난타퍼포먼스 난타의 주연배우들과 군악대, 뮤지컬, 한국무용 전공자 출신의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전통과 퓨전을 접목한 창작공연을 통해 문화 공연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악퍼포먼스 그룹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크루즈사와 협약하여 선내 정기공연을 통해 전 세계인을 만나고 있는 세계적인 극단이다.

이번 공연에서 스틱과 북의 현란한 움직임을 통한 화려한 볼거리를 역동적인 심장소리, 두드림의 미학을 만나 볼 수 있으며 댄스트롯돌 진이형이 함께하여 전통타악공연, 퓨전 타악공연, 트로트공연, 관객들과 함께하는 리듬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여 줄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통과 현대의 리듬을 아우름과 동시에 웅장하고 파워풀한 무대 현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이내믹하게 연주되는 다양한 타악기

부안출신 스타! 극단청명 리더 정관모 부안에 오다!!

역동적인 심장소리, 두드림의 미학
타악퍼포먼스그룹

with 댄스트롯돌 진이형

2018. 11. 14(수) 19:30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
주최/주관: 부안군
전체연령 가능 / 선착순 무료입장

는 흥겨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을 위하여 자체 기획한 본 공연에 많이 오셔서 타악퍼포먼스의 신명나는 무대를 감상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모든 연령 관람가)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이옥수 기자

비평문학 연구하고 그 가치를 널리 보급하는 '놀이 김환태문학제'

문학정신 계승 · 발전의장기대
문학콘서트 · 시낭송의시간 등

제10회 놀이김환태문학제가 지난 10일 무주읍 김환태문화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사)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와 문학사상사, 놀이문화회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문인협회, PEN전북위원회가 후원했으며 기념식과 제29회 김환태평론문학상 및 제6회 청소년 놀이문학상 시상식, 시낭송, 문학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사)김환태문화기념사업회 전선자 이사장, 전북문인협회 류희욱 회장, 서울대 방민호 교수, 전북대 임명진 교수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전선자 이사장은 "사단법인 체제에서 열 번째 놀이문학제를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가 놀이의 비평문학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널리 보급하는데 꼭 필요한 기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인홍 군수는 "김환태문학제는 능력 있는 신예들을 배출해 비평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놀이의 고향이자 문화예술의 고장인 무주를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비평문학계의 큰 별이 우리고장에서 탄생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선생의 작품이 김환태문학제를 통해 가치를 더하고 김환태문화관을 통해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9회 김환태평론문학상은 '한국 현대문학의 공간과 장소'를 완성한 송실대 이경재 교수가 수상했다. 김환태평론문학상 선고위원회에서는 "이경재 교수는 저작을 통해 독자적 연구로서 비평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줬다"라며 "특히 한국현대문학의 작품들, 작가들과 장소, 공간의 관련성을 일관성 있고도 넓게, 시대와 배경을 옮겨가며 탐사해 가는 역량을 발휘해보았다"라고 호평했다.

이경재 교수는 "김환태 평론가가 걸지 않은 기간 동안 비평 활동을 했음에도 오늘까지 잊혀 지지 않는 이유는 문학에 대한 사랑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평론가 김환태의 문학과 김환태문학상의 위상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더욱 열심히 쓰고 읽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6회 청소년 놀이문학상은 무주중 3학년 이승진 학생이 금상을, 손현수 학생과 오수연 학생이 은상, 박소은, 구교은, 김민주, 장경원, 김나은 학생이 동상을 수상해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공식행사 후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김환태 선생 묘소를 참배했으며, 문학비도 탐방했다. 놀이 김환태 문학제는 무주출신이자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인 김환태선생(1909~1944)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현재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김환태문학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문학관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놀이 전시관, 그리고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선집 등 다수의 저서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디지털익산문화대전' 기초조사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인문학연구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기초조사사업 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대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정리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향토문화 자료를 조사하여 그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원광대 인문학연구소는 이달부터 향후 1년간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디지털익산문화대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와 원고 집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강연호 교수 연구팀에는 박명수(원불교학과) 교수, 이남희(역사문화학부) 교수, 김정배(융합교양대학) 교수 등 원광대 교수진과 익산 지역학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사업 수행을 통해 익산시 역사, 문화, 생활사 자료의 통합 정리와 익산학 관련 DB를 구축할 계획이며, 익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진흥 기여와 함께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장 강연호(사진)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역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